

# 히말라야 원정을 향한 마지막 산행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무등산 무등길 일원에서 학생 62명과 교원 및 전문산악인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히말라야 희망학교 원정대 2차 캠프'를 실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과 도전의식 함양, 국제교류와 봉사활동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넓은 세계관을 심어준다는 취지

이래 지난해 11월 엄홍길·김홍빈 대장을 전남교육 명예대사로 위촉해 '2018 히말라야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히말라야희망학교는 올 2월 예비 학교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월출산·백운산 등 국내 명산에서 총 6회에 걸쳐 산행을 실시했으며, 원정대 1차 캠프는 지난달 지리산 천왕봉과 둘레길에서 진행했다. 이번

도교육청, 1박2일 일정 무등산 무등길 일원 학생 62명·교원 및 전문산악인 15명 참여 히말라야희망학교 원정대, 내달 18일 출정식

2차 캠프는 무등산 무등길 산행으로 히말라야로 출정하기 전 마지막 국내 산행을 마쳤다.

1일차에는 각화중·들산재·신촌마을-배재마을-평촌마을-동림마을-남면초-송계마을-정곡마을-무등마을(20km)코스로 8시간의 산행을, 2일차에는 무등산백제자연휴양림-수만다-큰재 주차장-용연마을(11km)코스로 4시간 동안 산행했다.

특히 1일차 저녁, 1차 원정대 캠프에서 구성된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히말라야 원정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와 휴먼스쿨 봉사활동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방법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출정을 위한 굳건한 마음을 다졌다.

원정대 2차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산행에서 무등길을 걸으며 예비학교를 포함한 여덟 번의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떠올리니 뿌듯했다."면서 "다가오는 히말라야 원정을 생각하니 무척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에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산행을 끝까지 마치는 학생들의 용기와 도전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히말라야희망학교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히말라야희망학교 원정대는 10월 18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1박 12일 동안 히말라야 원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 화순교육지원청, 인성교육 내실화 위한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은 14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치원 교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창의적 표현력을 길러주는 예술체험(연극놀이)활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교원들의 인성교육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유치원 인성교육 중부권 협력청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이 놀면서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의미 있는 유치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3시간씩 2회의 연극놀이 워크숍과 뮤지컬 관람, 총 3회로 계획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연극놀이를 통한 발달 연령별 움직임, 움직임과 마음치유, 몸과 마음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유치원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팁(Tip)들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교원

들 자신이 연극배우인양 진지하게 참여하였고, 박수와 감동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나·O·O 선생님은 "연극놀이라는 주제에 호기심이 생겼는데 와서 경험해보니 기대 이상이다. 내일 수업에 바로 적용해보아야겠다."라며 체험형 인성교육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워크숍을 진행한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의 조경향 강사는 유아의 생활이 모두 연극놀이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유아들의 개별적 성향을 존중하는 연극놀이 기본 원리를 교육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혜인 교육장은 앞으로도 몸짓 놀이, 음악 놀이, 책 놀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으로 교원 대상의 지속 성장 가능한 워크숍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교육품앗이 무안모아(母兒) 토요일체험프로그램' 성료



### 무안교육지원청, 학부모·지역민 함께 참여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지난 15일 학생, 학부모 및 지역민, 교사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품앗이 무안모아(母兒) 토요일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은 무안지역을 대표하는 약초골한옥마을과 파도복장 두 곳에서 체험 중심활동으로 전개 되었으며, 교

사, 학부모, 지역민 2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의 체험을 도왔다.

이 날 학생들은 한옥체험과 목장체험, 갯벌체험, 모시일송편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치즈와 요거트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남약초 6학년 양서현 학생은 "항상 흔하게 접하던 치즈와 요거트를 만드는 과정에도 과학적인 정보가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갯벌체험을 하러 포장되지 않은 길을 트래커를 타고 갈 때는 너무도 신났다. 앞으로

이런 체험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체험을 도와준 조미라 학부모는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애항심을 갖을 수 있을 것 같고, 체험활동이 고행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아이들 가슴 속에 남아 아이들이 성장해서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체험들을 더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재철교육장은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교육의 성과는 더욱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꿈 넘어 꿈 실현을 목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교육지원청의 '교육품앗이 무안모아(母兒) 토요일체험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2차 체험활동이 운영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4차 산업혁명시대, 건전한 사이버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전남교육청 사이버윤리 연찬회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나주 빛가람 초등학교 외 5개 기관에서 2018 학교장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SW교육/사이버윤리 연찬회를 실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창의·융합형 SW인재, 건전한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함께 키워가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초·중·고 학교장과 학부모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연수는 컴퓨팅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동시에 이뤄졌다.

연수에 참여한 여수 안심초등학교 최은정 학부모는 "초등학생 SW교육 필요성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현재 5학년인 딸 아이의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해 더 많은 SW교육 현장을 찾아다니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환 기자

## 완도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서 가을을 만나다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조소희)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토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북 콘서트'는 9월 11일 고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8일 보길초등학교까지 총 22회 학교로 찾아가 작가와의 만남·대화·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미우, 김경희 작가가 1인극 공연과 만들기 등의 체험시간으로 독후활동을 갖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정소년 나를 사랑하자!'와 '정소년을 위한 독서예세이'로 이옥수, 박상률 작가와의 시간을 갖는다.

맞춤형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군외초등학



교, 청해초등학교, 신지중학교, 약산고등학교 등 4개교에서 진행한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생각 나눔의 시간으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여러 토론 기법(포론콘 토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등을 안내하고 독서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해보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